

해남 4est수목원,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공모 선정



현산면 봉동마을 6만여평 1400여종 식물 식재

포스트코로나 대비 언택트 관광 대표로 육성

해남 4est(포레스트)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균형 있는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발굴, 체계적인

마케팅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망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

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8,000여 그루를 식재한 수국정원은 국내최대 규모로, 계절별로 봄분홍꽃축제, 여름 수국축제, 가을팜파스그라스축제, 겨울 얼음축제 등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주목받고 있는 매력적인 야외 관광지로, 2021년에 방문해야 할 12개 명품 숲 및 전남 언택트 관광 5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해남군과 한국관광

공사 광주전남지사가, 4est수목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주·전남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으로 해남의 관광자원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정경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농작업용 편의의자 보급 인기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공급



강진군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의의자 지원사업을 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강진군이 공급한 농작업용 편의의자는 농작업 편의의자의 증진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개발된 특허제품이다. 기존에 다리에 끼우는 의자와 달리 허리 벨트에 간단히 장착할 수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며,

이동 시 의자가 엉덩이에 고정되어 안전하게 구성돼 있다. 공급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연 2,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자체 폐기하면 된다. 편의의자를 전달받은 강진읍 배양남씨는 "기존 사용하는 편의의자보다 편리하고 착용하기 쉬워 농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격히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의 무릎 건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공급하고 있다"며 "편의의자가 필요한 농업인은 마을대표자를 통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 농림축수산 보조사업 안내 책자 발간

강진군은 지난 21일 농업인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1년도 농림축수산분야 보조사업 안내책자 1,800부를 발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 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달라진 사항 안내와 함께 270종, 910여억 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사업비, 추진일정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특

히 사업을 담당부서별로 구분하고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문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했다. 송승연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역 농가들이 농림축수산지원 사업의 정보를 몰라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조기에 발간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해조류바이오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한다

해조류산업 관광프로그램 착수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해조류의 전국 생산량 대비 40%를 차지하는 해조류의 본 고장으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조류 산업 관광프로그램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조류산업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최근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관광과 해양바이오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인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동취재본부

프로그램은 해조류 양식 및 활성화 물질 추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해조류 탐험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해조류바이오 과학자 캠프'를 운영할 방안이다. 이를 통해 해조류 산업에 대한 적성 탐색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진로 및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4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를 특화한 관광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해조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을 다각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50억원 소진시까지...50,000원권 등 총 4종 판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한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50억원 소진시 까지 10%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입은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18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50,000원권 50,000원권을 포함해 10,000원권, 5,000원권, 2,000

원권 총 4종으로 판매된다. 지역 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개인이 현금 구매시 상품권 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70만원, 연 6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법인과 가맹점주는 구입이 제한된다. 또 구입한 상품권은 관내 1,300여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군청 경제마케팅과와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7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30억원을 발행해 260여원이 판매되어 관내 상가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지역 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확대해 지역 자본이 진도군 관내 지역에서 유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설 온라인 성묘하세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및 '남도광역추모공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봉안당 855기, 자연장지 595기, 유족동산 123기 등 총 1,573기가 안장돼 있다. 유가족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안치사신을 신청하면 2월 11일부터 고인 검색 및 고인의 사진이나 안치장면을 업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 성묘는 차례상 음식 차리기, 헌화대를 선택하는 등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